

## 양현종, 탈삼진엔 즐거운 '후배 사랑'

1개당 10000원 적립  
 모교 광주 학강초교 후원  
 시상금 등은 이웃 돕기에  
 내년에도 두자릿 승수 도전

KIA 최고의 좌완으로 거듭난 양현종이 성탄절인 25일 모교인 학강초를 방문해 '산타'로 변신했다.

양현종은 이날 학강초 강당에서 열린 학강초 야구부(감독 최태영)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올 시즌 차곡차곡 적립한 145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후원의 날에서 두산 이원석과 함께 학교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던 양현종은 이 행사를 통해 탈삼진 한 개당 1만원을 후원금으로 적립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2009시즌 139개의 탈삼진을 뽑아냈던 양현종은 올 시즌에는 145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145만 원을 적립했다.

양현종은 얼마 전에는 대한사회복지회 영어 일시보호소를 찾아 동료들과 적립한 월간 MVP 시상금을 전달하는 등 연말 사랑나누기에 동참했다.

틈틈이 모교를 찾아 후배들의 훈련을 돕는 양현종은 "집이 근처라서 시간 날때면 학교를 찾는다. 지난해 팀이 우승하고 처음으로 10승 이상을 올리는 등 후배들에게 당당한 선배가 될 수 있었다. 자신에게도 의미 있고,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탈삼진으로 후원금을 적립하기로 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후배들이 운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KIA 투수 양현종(맨 뒷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25일 모교 학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야구부 후원의 날에 참석해 후배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현종은 탈삼진 하나에 1만원씩 적립해 145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있기를 바란다. 내년에는 더 많은 삼진을 잡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2승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올렸던 양현종은 올 시즌 16승 고지를 밟으며 김정수 투수코치, 신동수 동승고 감독이 가지고 있던 KIA 좌완 최다승(14승)의 기록을 넘어섰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낙마한 SK 김광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금메달도 목에 걸었다.

양현종은 금메달로 병역혜택까지 얻은 데 이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2010프로야구 페어플레이상을 받아 KIA 선수로는 유일하게 시상대에 오르는 등 야구 인생 최고의 해를 보냈다.

양현종은 "후반기 체력적인 부담으로 전반기에 비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한 해였다. 내년에는 팀 좌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에 도전하겠다. 개인적인 목표는 그게 유일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한 해였지만 팀이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 내년 시즌에는 팀 우승에도 앞장서겠다"고 2010시즌 대한 포부를 언급했다.

한편 25일 학강초야구부 후원의 날 행사에는 KIA 내야수 김주형, 외야수 김다원, 두산 내야수 최주환, SK 내야수 박정환 등 국내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과 학부모, 관계자 5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고향 찾은 풍운아 최향남

### 도전 자체가 인생의 경쟁력 국내 무대에서 마지막 불꽃투

"도전 자체가 나에게 인생의 희망이었고, 감동이였다. 내년 시즌 국내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

국내 무대에 복귀하는 목표 영혼고 출신의 '풍운아' 최향남이 25일 광주를 찾았다. 해태시절의 친구인 최태영 학강초 감독의 초대로 학강초 야구부 후원의 날 행사에 참여한 것이다.

빅리그에 도전했던 투수 최향남은 야구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국내로 선택했다. 최향남은 26일 롯데와 연봉 7000만 원에 1년간



최향남은 LA 다저스 산하 트리플 A 앨버커키에서 꿈을 쫓았지만 빅리그 무대에 오르는 데에는 실패했다.

최향남은 "외국에서 먹는 것 지내는 것 힘든 것도 많았다. 하지만 감동적인 도전이었고, 그런 감동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다. 그곳에서 외국 선수들과 운동을 했다는 것, 어린 선수들과 같은 메이저의 목표를 향해 달렸다는 것에 만족한다"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당연히 도전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빅리그 도전 실패했지만  
 후배들에게 당당한 선물

3년만에 롯데 컴백

연봉 7000만원 재계약

계약을 맺었다.

최향남은 "알만 보고 달려오느라 몸도 안 좋아졌고 그동안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다. 앞으로 몸 잘 추스려서 어떤 입문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선수생활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고 국내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KIA의 전신 해태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최향남은 LG를 거쳐 2004·2005년 친정 KIA로 돌아왔다. 이후 최향남은 2006년 미국 클리블랜드 산하 트리플 A 버펄로에 진출해 빅리그를 노렸다.

하지만 꿈의 무대를 밟지 못했던 최향남은 2007년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롯데 소속으로 2008년 3.58의 방어율로 2승4패9세이브3홀드를 기록했던 최향남은 이듬해 메이저리그 재도전을 선언하며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대학, 군대 다녀온 뒤 자유계약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만큼 나이가 걸림돌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25~26세의 젊은 선수가 도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른 비결은 없다. 지금의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다보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새 시즌 담금질 위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가 8년 만에 정상에 오른데 결정적인 대표를 쏘아올렸던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국내 체류 일정을 마무리하고 27일 미국으로 떠난다.

추신수는 이날 오후 미국으로 건너가 애리조나 피닉스 집에서 2011년 미국프로야구 시즌을 대비한 담금질을 일찍 시작할 예정이다. 또 지치지 않는 클리블랜드와 연봉 협상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메이저리그에서 2년 연속 타율 3할을 때리고

호타준족의 상징인 20(홈런)-20(도루)를 얻어 주 달성, 팀의 간판선수이자 빅리그 정상급 외야수로 자리를 굳혀며 최고의 활약을 남긴 추신수는 어느 해보다 바쁜 겨울을 보냈다.

지난 10월10일 귀국해 아시안게임 준비에 들어갔던 추신수는 대표팀에서 맹활약하며 금메달을 때내 병역특례를 누리며 빅리그 10년간 깃들러온 걸림돌을 없앴다. 추신수는 이후 각종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휩쓸며 분주히 움직였다.

아시안게임 후 훈련을 쉬 추신수는 내년 2월

## 국내일정 마무리 오늘 美 출국

"연봉 성적만큼 대우받고 싶다"

중순부터 시작한 스프링캠프를 겨냥해 일찍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려 성공신화를 계속 써내려 갈 것이다.

한편 "성적만큼 당당하게 대우받고 싶다"고 말한 추신수는 연봉 조정신청 자격을 얻었기에 이과 관련해 에이전트와 긴밀한 협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연봉으로 46만1000달러를 받은 추신수는 연봉조정신청에서 승리하면 몸값이 10배 가까이 뛰여 400만달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필뉴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 난방비 절감, 등유대비 70%이상 놀라운 절약률!!

LG 히센시스템이 설치 및 애프터 서비스 유지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장점**

- 절전형 고효율 인버터 콤프레서
- 친환경 냉매
- 하이드로 키트채택

바닥 난방, 급탕이 필요한 병원, 기숙사, 리조트 등 다양한 건물에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LG전자 시스템 에어컨(주) 특관부 진영설비**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28-10번지  
 TEL. 062-953-2371 · 061-727-2371 · 019-624-2371

##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20가지)

**6만원** 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특별시설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윌티니스센터
-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 BF1 대연회장, 페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arthall.co.kr